



산청9경

제1경 지리산 천왕봉

제2경 대원사 계곡

제3경 황매산 철쭉

제4경 구형왕릉

제5경 경호강 비경

제6경 남사에담촌

제7경 남명조식유적

제8경 정취암 조망

제9경 동의보감촌

고결한 선비정신 품은 산청 3매

산청재 남명매

남명 조식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며 말년을 보낸 산청재의 뜰에 산청이 직접 심은 매화나무로 수령은 450년 기량 되었으며, 옥같이 맑고 열매가 푸른 남명산청의 기개를 이어받고 있다.

단속사지 정담매

단성면 운리 단속사지에 있는 정담에는 고려 말 대시현을 지낸 통정공 강화백(1357~1402)이 어린시절 글공부를 할 때 심었다고 하며, 현재는 그 후계자들이 선비의 지조를 되새겨 주고 있다.

남사마을 원정매

남사에담촌 하씨 고택에는 고려 후기 문신인 원정공 하륜(1303~1380)이 심어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으며, 70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밀동 가지에서 피어나는 원정매의 향기가 진하게 코끝에 남는다.

